

##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 제 11장 국가의 정치체제와 각 인간상 II

#### ◆ 1교시 영혼의 권좌

##### ▲ 과두정체적 인간

교재 528쪽부터,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정체적인 인간이 아버지인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제, 533b 라고 된 곳을 보시면, 거기서 한 때 장군이거나, 다른 높은 관직을 맡고 있다가, 아버지가 말이죠. 무고자들에게 무고를 당해서 사형당하거나 추방되는 것을 보고 재산도 다 잃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난으로 비천해져서 탐욕스레 돈벌이로 전향해서 조금씩 절약해서 일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이러다가 529쪽에요. “욕구적이며 재물을 좋아하는 자를 옥좌에 앉힌 다음 황제로 삼고, 헤아리는 부분과 걱정적인 부분을 욕구적인 부분 아래 쪼그려 앉아서 노예 노릇을 하게 만들고, 어떤 수로 더 적은 재물에서 더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겠는지를 셈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지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553 d, 529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걱정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으로 하여금 부와 부자들 외에는 어떤 것도 감탄하며 존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물 획득이나 그것 외에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재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과두정체와 닮았고요.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하자면요.

##### ▲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주도하는 인간의 성향

정의로운 사람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명예정체에 해당하는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명예 추구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개적인 부분이 그 사람의 영혼의 주도권을 잡고 권자에 놓일 경우, 이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욕구적인 부분이 권자에 앉게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욕구적인 부분이 권자에 앉게 되면 이 사람은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에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로 치자면 이것이 훌륭한 나라에서의 통치자 계급, 전사 계급, 생산자 계급, 이 셋과 일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훌륭한 나라에서라면 전사가 되었을 만한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요. 훌륭한 나라에서 생산자가 되었을 만한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나라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을 금, 은, 동이라고 이야기 한 것인데, 청동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동은 청동으로서 자체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으로 치자면 욕구적인

부분,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저런 욕체적인 욕구들을 갖는 것이 욕구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는 성향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계적인 부분이 갖는 기본적인 성향은 자기존중,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본래적으로 갖게 되는 성향은 진리 탐구지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나라로 치자면 나라의 금의 성향, 은의 성향, 청동의 성향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부분에서 이성적인 부분이 항상 영혼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부분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어요.

#### ▲ 욕구적 부분이 지배하는 과두정체적 인간

그런데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531쪽을 보시면, 554 d 넘어가는 곳 말이지요. “즉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것으로 여겨져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그런 여느 계약 관계들에 있어서는 자신 안에 있는 여느 나쁜 욕망들을 자신의 어떤 적절한 부분에 의해서 힘으로 제압한다.” 물론 이것이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와 공포감에 의해서, 마치 과두정체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두정체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쁜 욕망들을 강제로 누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추구하는데,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욕구들도 억압해야 해요. 놀고 싶을 때 만날 놀고 그러면 돈 잘 못 번다는 말이에요. 원래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지요. 놀러가기도 싫어하고, 가족도 잘 안 돌보고, 이렇게 일에 파묻혀서 돈 버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다른 종류의 욕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욕구적인 부분은, 애초에 국가 4권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욕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성적 욕구,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날 비싼 음식만 먹어채끼고 하면 가산을 탕진하여 돈을 벌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날 비싼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절약도 하는 그런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편으로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욕구적인 부분에 속하는 어떤 종류의 욕구들은 억압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 ▲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욕구가 있는데,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로 나눕니다. 이 나누는 것은 민주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 때 이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어떤 종류의 욕구들은, 여기서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욕구의 구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구적인 부분들이 담고 있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욕구 중에 어떤 욕구들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사람이지만,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한다고 얘기해

서 욕구적인 부분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욕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욕구 중에 어떤 특정한 욕구들만, 특히나 돈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욕구들만 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물론 이성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사람이나 기개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사람은 욕구적인 부분의 이런저런 욕구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사람조차도 욕구적인 부분의 이러저러한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좀 지우고요.

#### ▲ 영혼의 각 부분이 지닌 욕구들 사이의 갈등

애초에 우리가 영혼을 나눌 때에, 소크라테스가 썼던 것이 목마르지만 마시지 않는 사람. 이때 목마르다는 것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였어요. 마실 것에 대한 욕구란 말이에요. 마시지 않음에 해당 되는 것이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였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목이 마르지만 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이성이 내렸을 경우에, 이성의 판단에 같이 가는 욕구가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자 하는 욕구, 반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도 그 욕구에 해당하는 욕구들이 다 있고요. 기개적인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욕구가 다 있고, 욕구적인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애초에 욕구들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라고, 세 그룹으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목마르지만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마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시지 않았으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와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가 서로 대립했는데,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셔라, 라는 어떤 명령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성적인 부분은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는 마시라 하고 애는 마시지 말라고 해서 영혼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가 이긴 것이예요. 그래서 안 마셨단 말이에요. 이걸 마실까 말까 하다가, 에이 마실래, 하고서 마시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 음식인데, 지금 내가 당뇨가 있어서 단 음료는 마시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나 굉장히 목도 타고,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마시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실까, 말까,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실제로 마셨어요. 그렇다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가, 마시라는 명령을 내린 그 부분이 이긴 것이지요.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이성적인 부분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은 사람은 이성이 주도하는 사람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맥락, 특정한 그 맥락, 단 음료를 마시느냐, 그 맥락에서는 이성이 이겼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마시지 않은 사람은,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과두정체적인 인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때 마시라는 명령을 내리는 욕구가 욕구적인 부분에 속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가 아닌, 어떤 다른 종류의 욕구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욕구적인 부분에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욕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나쁜 욕망이라고 얘기한, 554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쁜 욕망들. 나쁜 욕망들을 제압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욕

구적인 부분의 어떤 욕구들은 제압이 된다는 얘기에요. 제압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냐 하면, 그 욕구가 작동해서 나 이것 하고 싶다고 할 때, 갈등이 있겠죠.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안에서 그 사람의 과두정체적인 부분의 이성이 지금 마시면 안 돼. 지금 마시면 너 당뇨병 걸려서, 병 걸리면 병원에 누워있게 되고, 그러면 돈 깨지고, 지금 이것 마셔서 병 걸리면 병원 가서 입원해야 하지, 입원 하면 그동안 경제 활동 못하니까 돈 깨져, 의사한테 돈 줘야 하니까 돈 깨져, 이러니까 너 이런 것 마시면 안 된다,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그때 판단은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마시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내 욕구가 지금 계속 마시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 때 내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으면, 그런 것에 한해서 이성이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때 그 이성이란 것이 한 일은 뭐냐, 그것이 553 d 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수로 더 적은 재물에서 더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겠는지를 셈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려면, 지금 이 순간 이것 마시고 그러면 안 돼, 그런 판단을 이성이 내려줘요. 그때 이성의 판단이 뭐냐 하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산하는 것이 과두정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 한 일이지요. 그것을 이성이 욕구적인 부분에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역설적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를 이성적인 부분의 명령이 욕구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이성적인 부분이 결국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지만 그 이긴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욕구적인 부분, 전체로서 욕구적인 부분의 종노릇을 하는, 노예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헛갈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혼의 부분에서 지배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이 부분, 이 맥락에서 마시라고 명령을 내린 것하고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부분에서 마시지 않는 쪽을 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더 힘이 켜고, 애 말을 들었으니까.

#### ▲ 영혼의 순간적 지배와 지속적 지배

지배라는 것을, 영혼의 부분의 지배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순간적 지배와 지속적인 지배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가 있고요. 이 때 순간적인 지배는 어떤 수단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관철해 내는 것에 이 이성의 지배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성의 지배라고 합시다. 이성의 순간적인 지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을 했으면, 그때는 이성이 분명 순간적으로 지배를 한 것이에요. 어떤 영혼의 갈등이 있어요. 영혼의 갈등은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갈등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판단대로 행동을 했어요.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행동을 한 그 순간에 있어서 이성이 나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대로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의 판단은, 내 삶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는 바가

없지요. 내 삶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지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그때 순간순간 사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민주정체적인 인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삶의 지속적인 방향, 삶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나,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성이 지배하느냐, 기개가 지배하느냐, 욕구가 지배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성의 지배라고 했습니다만, 이성의 지배가 아닐 수도 있지요.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싶은 욕구에 저서 내가 지면, 그 순간 욕구가 나의 삶을 지배한 것이지요. 그 순간적인 욕구가 순간적인 지배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지속적인 지배와 관련해서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리 추구냐, 명예 추구냐, 돈을 추구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속적인 지배가 결정 되고요. 여기 지금 명예정체적인 인간이나 과두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 하면서, 영혼의 권자를 이야기 하는 것. 553 c, 529쪽 “욕구적이며 재물을 좋아하는 부분을 욕좌에 앉힌 자.” 그 욕좌에 앉힌다는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목적을, 돈을 추구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욕구적인 부분에서 나온 목적이거든요. 욕구적인 부분이 흔히 추구할 만한 목적,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욕구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뭐냐, 영혼의 다른 부분들, 이성이라든지 기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욕구적인 부분의 목적에 종사하는 거예요. 이 목적에 종사 하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을 추구한다는 삶의 목적을 세워 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고 같은 것은 안하고 될 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목적은 돈으로 세워 놔는데, 돈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성도 작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유혹에 따라서 술 마시고, 비싼 음식 먹고, 저금 하지 않고, 돈 버는 대로 다 써버리고. 이런 것은 돈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잘 안 맞아요. 그때는 이런 사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돈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성이 그 사람의 목적, 욕구적인 부분이 세운 목적도 잘 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기개나 이성이 그 사람의 목적에 잘 종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성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계산을 해줘요. 잘 계산을 해주고, 기개는 돈 많이 번 것이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누가 지금 가문이 어떻다 하면 그 무슨 가문은 개뿔, 하면서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써요. 돈 많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그렇게 내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개적인 부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존경할 만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주는 이것은 기개적인 부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개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다 돈의 추구에 대해서 어떤 충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성은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떻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잘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명예가 중시 되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가 걸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한마디로 말해 망신살이 뻗칠 것이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성이 그런 판단을 내려주면 그 판단에 따라 잘 따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성이 지배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기개적인 부분이 지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순간 화가 났, 여기 이번에는 여기다가 기개적인 부분의 욕구라고 이렇게 한 번. 화가 났어요. 목마르지만 마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오디세우스처럼, 4권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처럼, 지금 화가 나서 하녀들을 다 죽여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녀들을 죽이고 싶지만 참는 사람. 이제 오디세우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는 어떤 것을 얘기 하느냐 하면,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요. 기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다 죽여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이 예는 기억나시지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페넬로페를 구혼하러 왔던 사람들이 하녀들이랑 문란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다 죽여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가슴을 두드리면서, 참아라, 내가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예요. 그런 경우에 그 순간 다 죽여 버리는 것은 화에 내가 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얘가지요. 그러니까 영혼의 지속적인 지배가, 기개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있어서는 기개적인 부분을 이성적인 부분이 눌러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기개적인 부분이 죽이라고 해요. 그 순간 죽이라고 하고. 이성적인 부분은 죽이지 말라고 해요. 꼭 이성의 지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지배.

#### ▲ 목적으로서의 지속적 지배와 수단으로서의 순간적 지배

이 수단이라고 얘기 한 것은 이성과 상관이 있습니다만, 수단은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이성이란 것이고. 어쨌든 이 순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그 순간 죽여 버렸다고 하면 그 순간에 있어서는 기개가 지배를 한 것이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지속적인 지배, 명예의 추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개적인 부분의 목적에 잘 봉사를 못 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지배가 가만히 보시면, 지속적인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성이 적어도 순간적으로 지배를 해줘야 기개라든지, 다른 부분도 지속적인 지배가 가능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개적인 부분이 되었건, 욕구적인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이성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종류의 지속적인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지배는 이성이 계속 작동을 해줘야지, 적어도 많은 순간에, 이성적으로 순간적인 지배들을 해줘야지 기개적인 부분이나 욕구적인 부분의 지속적인 지배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수단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어떤 목적에 종사하는 수단은 내가 그 수단을 제공해 준 것은 이성이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서 이성이 내가 명예를 얻고 싶다면 이 순간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해, 돈을 얻고 싶다면 이 순간에는 이런 것을 해야 돼, 이런 판단을 누가 해주냐 하면, 그것은 이성이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만약에 명예를 잘 추구하는 삶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순간순간에는 이성이 잘 작동을 해서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을 이성이 잘 파악해주고, 그 파악한대로 살아야지 명예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

고, 돈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성이 순간적으로 지배를 못하게 되면, 지속적인 지배라는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한다, 돈을 추구한다, 지속적으로. 아까 돈을 추구하는 경우 얘기했지요.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방탕하게 살아버리면 돈 추구를 못하지요. 돈이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오디세우스가 예를 들어서 순간 화가 난다고 다 죽여 버리거나 이러면, 화나는 대로 행동을 하면 명예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개적인 부분이 자기 혼자 매 순간 제멋대로 막 행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기개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명예 추구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적어도 수단적으로는 이성이 순간순간 지배를 좀 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성이 종노릇을, 이성적인 부분이 기개적인 부분의 종노릇을 하거나 욕구적인 부분의 종노릇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잘 제공해 주고요. 그 수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까지 다 따라 나와 줘야지만 제대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되게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욕구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사람이 이성은 아무것도 없느냐. 욕구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사람, 이성이 나름대로 작동을 해줘야지 욕구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 ◆ 2교시 영혼의 조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세 가지 인간상

### ▲ 영혼의 지속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인간유형 - 최선자, 명예, 과두 정체적 인간

쉽게 말하자면, 지속적인 지배를 결정짓는 것은 왕이 누구냐, 아까 권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왕이 누구냐 하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왕이 있으면 거기에 모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나라로 치면. 모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 왕이 그 말을 들어 줘야지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 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 최선자 정체, 명예정체, 과두정체, 그 밑에 민주정체, 그리고 참주정체를 얘기 했습니다만, 적어도 위의 3개까지는 영혼이, 나라가 지속적인 틀에 맞춰서,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 나라가 굴러가고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간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에서 이 사람들은, 특히나 명예정체적인 인간과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분명히 부정의한 사람입니다. 부정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도 아까 나쁜 욕망들은 제압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적어도 돈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부정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계약관계 같은 것이 있을 때 계약 파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좋은 계약을 못 맺겠지요. 돈을 잘 벌려면 계약 관계에서 좋은 행동을 정의롭게 해 줘야만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해 주는 사람이에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명예정체적인 인간도 계약 파기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정체적인 인간이나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부정의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만, 삶의 어떤 맥락 속에서는 정의로운 행동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제한된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그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 행동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정의를,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롭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정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명예를 위해서건 돈벌이를 잘하기 위해서건.

### ▲ 세 인간 유형이 정의를 추구하는 맥락과 정도의 차이

분명히 영역을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정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의로운 사람하고, 명예정체적인 인간하고, 과두정체적인 인간하고, 이 세 명을 비교해 본다면. 물론 이 뒤에 민주정체적인 인간,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특히 정의와 관련해서는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해요. 그 자체로 추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니깐, 어떤 맥락, 어떤 맥락, 지금 이 맥락이 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하는 것만 따져본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과연 정의로운 행동이나,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나. 정의로운 행동이면 해요. 정의롭지 않으면 안 해요. 주위 사람들이 보느냐, 이것으로부터 이득이 생기느냐, 이런 것은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명예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과두정체적인 인간도 마찬가지로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이나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라우콘이나 아테이만토스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고, 그 결과,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할 것이냐, 결과 때문에 추구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글라우콘과 아테이만토스 얘기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할 때 결과 때문에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만이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행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로,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이 사람은,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정의를 어떤 경우에 추구하겠어요. 명예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명예 추구가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 추구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를 추구해요. 과두정체적인 사람은 어떠하냐.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정의를 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둘 다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한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스의 반지 이런 것을 명예정체적인 인간이나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갖는다고 한다면, 반지 틀 어가지고 남들 안보일 때는 부정직한 행동을 하다가, 남들 보게 될 때는 정의로운 행동 하고 그럴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어차피 기계스의 반지는 없다고 봤을 때,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내가 실제 상황에서 정의로운 행동들을 했을 때, 돈벌이에 도움 되는 경우와 명예에 도움 되는 경우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돈벌이에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도움 되는 경우는 항상 명예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계약 파기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 계약 파기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명예도, 저 사람 계약 파기한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러면 불명예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운 행동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경우 당연히 명예에도 도움이 되요. 그러니까 돈벌이에 내가 어떤 거짓말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명예를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요. 그런데 명예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항상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것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벌이에 도움 되는 경우가 정의로운 행동들 중에서 돈벌이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금 다 정의로운 행동들이예요. 이 행동은, 어떤 종류의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 중에서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어요. 돈벌이에 도움 되는 행동들은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의로운 행동들은 당연히 명예 유지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명예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돈벌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정의로운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든지 정의로운 행동이면 다 한단

말이에요.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명예 유지, 명예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행동들은 안 해요. 구체적 예를 들자면, 정의로운 행동 중에서 아무도 모를 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고, 약속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무인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어떤, 내가 이제 무인도에서 토끼를 하나 잡았는데 내가 이 토끼 잡은 것을 둘 다 배고픈 상황에서 반 줄 테니 나중에 우리가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우리 딸을 위해서 뭘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토끼 반을 먹었어요. 주위 아무도 없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구출이 되어 나중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지요. 약속 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지만 약속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은 명예 유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돈벌이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명예 추구하는 사람이나 돈벌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 안 해요. 약속 누가 했는데, 나밖에 아무도 모르는데. 안 지켜요.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지킬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뭐 돈벌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명예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컨대 그것 좋은 예네요, 기부하는 것은 딱 정의로운 행동인 것인지, 그렇게 그게 분명치는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명예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런 예, 기부하는 행위는 분명히 그런 것이 될 테고요. 예컨대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약간 예를 바꿔서, 내가 아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 나으면, 암에 걸려서 내 병을 누군가 고쳐주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처럼 엄청난 재벌이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 재산을 뭐 고아원에다가 전부 기부하겠다고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땐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나아졌을 경우에,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부를 하는 것은 돈벌이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부를 하는 것은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명예 유지에,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전 재산을 기부 하겠지요. 그렇지만 돈벌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럴 경우에 그런 행동을 못해요. 예를 들어 반만 잘라 준다는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전혀 안준다는 것은 그것도 현명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기부한다고 해놓고서 한 푼도 안주면 저 사람 이상하네, 해서 댓글 막 올라와서 재 옛날에 다 준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줬다는 식으로 하면, 기업 불매 운동 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어쨌든 전 재산을 다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실제로 정의로운 맥락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의 맥락 속에서만 정의로운 행동들을 할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기서 정의로운 행동 중에, 이 부분도 많지만, 역시 어떤 일부의 경우에서만 정의로운 행동을 할 테고요.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정의로운 모든 맥락에서 다 정의를, 정의로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과도정체적인 인간조차도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한에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완전히 부정의한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 재벌이, 돈을 다 주겠다, 내가 이 병이 낫게 되면 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이

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나아진 다음에, 전 재산을 환원 하는 것은 좀 그런데, 내 재산의 반을 떼어 주겠다. 그 정도 얘기해도 완전히 입 씻고서 그냥, 그 때는 아꼈을 때고, 뒷간 갈 때하고 간 후하고 얘기가 달라진, 사람 마음이 달라진, 한 푼도 안주겠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부정의한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차원에서 분명히 정의,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정의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의한 사람 중에서도 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에 가까운 부정의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민주정체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 이렇게 쪽 있는 것입니다.

#### ▲ 영혼의 조화를 통한 덕목의 실천

그리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정체적인 인간과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부정의함의 정도가 훨씬 더 큰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 지금 이 세 사람의 경우에,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덕을 보여준다. 정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용기도 그럴 수 있고, 절제도 그럴 수 있고, 다 적용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한된 영역이냐 어떤 탁월함을, 아래테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이 사람(정의로운 사람)은 말 할 것도 없고요, 이 두 사람(명예정체적 인간과 과두정체적 인간)의 영혼이 적어도 어떤 한 부분이 그 주도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나름대로의 조화는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적어도, 물론 이게 욕구적인 부분이 권좌에 있습니다만, 그 욕구적인 부분을 권좌로 놓고 나서, 기개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그 욕구적인 부분의 종노릇,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 추구를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추어져서 이 사람의 영혼이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개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조차도, 아까 지웠습니다만, 순간적인 지배와 지속적인 지배를 얘기 했었는데요. 순간적인 지배와 관련해서는 욕구적인 부분과 기개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이 이성적인 부분의 명령에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났을 때, 기개적인 부분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무엇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이 지금 그것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따르단 말이에요. 욕구적인 부분이 지금 어떤 욕구가 있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성적인 부분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요. 적어도 그런 것에 한해서, 그 순간순간이라도 이성의 지배를 받는 한해서 이성의 총체적인 지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인, 순간적인 지배들을 받는 한에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이 되고요. 그나마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삶의 이런저런 영역에서, 적어도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보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정의를 가지고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특징적으로 용기와 같은 덕을 상당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용기일 경우에도 진정한 의미의 용기, 이것은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만 진정한 의미의 용기를 갖겠습니까만, 명예와 용기는 굉장히 밀접하단 말이에요. 겁쟁이 소리 들으면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용기를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맥락에서, 아까 정의의 경우에는 분명히 딱딱 나뉘었지만 말이에요. 용기와 관련해서는 진짜 용기와 겹치는,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행동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특히 절제와 같은 덕에 있어서, 절제를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욕구를 그냥, 그때그때 생기는 욕구대로 따라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절제와 관련된 덕에 있어서는 과두정체적인 인간도 상당히 절제 있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체가 어떻게 생기고,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과두정체가 어떻게 생기고, 과두정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명예정체적인 인간과 과두정체적인 인간도 정의로운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민주정체적 인간과 참주정체적 인간은 명예정체적 인간과 과두정체적인 인간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미리 좀 말씀 드리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조 지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만큼 소크라테스가 더 낮게, 더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남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10권 부분을 거의 안할 것 같고요. 9권 끝부분까지인데요. 그 부분 좀 읽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